

# 시와 찬양으로 복음의 작품을 남긴 70인 제자 다윗 -복음으로 여는 시편- 시편 23:1-6, 마태복음 1:1

정윤돈 목사님

\* 시23:1-6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마: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활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치유를 받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과 세계복음화와 교회, 후대를 위해서 생명까지 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시, 찬양, RUTC의 작품을 이 땅에 남겨야 한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시편은 최고의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 작품이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명작품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와 끝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까지 되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쉼 만한 물가, 평안함, 살림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골짜기, 문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걱정,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계속해서 재앙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역사할 수 없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다. 넘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 그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남겼다. 그 시를 읽어보면 아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다윗과 같은 대표적인 램넛들은 아무리 모델적으로 훌륭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넘어진 부분, 연약한 부분이 나온다. 완전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의 진짜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시 RUTC운동을 사실적으로 펼친 영적인 서밋이며, 70인 중직자였다. 시편의 시와 찬양은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까지 치유하는 놀라운 위력이 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tehillum)’이다. 이는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시가 아니라 노래의 가사이다. 그리고 헬

라어 번역 성경인 70인 역에서는 헬라어로 ‘살모이’이다. 이 의미는 ‘시가의 책’ 또는 ‘반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을 중심으로 시편의 특징과 시편에 담긴 은혜로운 말씀과 미션을 발견하고자 한다.

## 1. 먼저 첫 번째로는 시편의 특징과 구성, 형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1) 시편은 신,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기도 한다.

(2)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있고, 이것들은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41편, 42-72편, 73-89편, 90-106편, 107-150편) 과거에는 두루말이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5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3) 그리고 시편의 시를 기록한 작가는 여러 사람들이다. 다윗이 73편, 모세가 1편, 솔로몬작품 2편과 고라의 아들들, 아삽, 여두둔, 에단, 헤만 등이 있다.

(4) 구약시대 당시에는 성전과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예식에서 시편의 찬양을 사용하였다.

(5) 또 다른 시편의 특징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총 283구절에서 구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0절을 시편에서 인용을 하였다. 그만큼 시편은 중요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재림, 십자가 사건이 다 예언되어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오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의 내용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이 시편에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미래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한 것이다. 성경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시편 22편 16절의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이 내용은 십자가에 매달려 창으로 손, 발을 찢은 내용을 예언한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35절과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족에 못박히는 내용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시편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군인들이 나눠 갖는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약 400-500구절이 나온다. 간접적인 내용은 3천번 가까이 나온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해서 태어난 위인이 있는가. 전혀 없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기 위함이다.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6) 다음으로는 시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식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시편의 기록 형식 중에서 대표적인 형식이 답관체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답관체(踏冠體), 영어로는 아크로스티크(Acrostic)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가 알파벳의 순서대로 쓰여진 시 형식을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기, 리, 디 순으로 시를 쓴다면 다음과 같다.

1절(기) 기억-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2절(리) 니온-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3절(디) 디곤- ‘다함께 모여 성소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세!’

시편 119편은 8절씩 22개의 히브리서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대표적인 답관체 즉, 아크로스티크 형식으로 기록된 시이다. (8×22=176절로 되어 있음)

② 다음으로는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평행법들에 대하여 시편 문장을 통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다.

첫째는, 동의적 평행법이다. 시편 15편 1절과 같은 경우이다. “야웨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오며 / 주의 성산에 거할자 누구오니까” 두 번째는 반의적 평행법이다. 이는 첫 구절체는 긍정적이고, 둘째 구절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대립시키는 평행법을 말한다. 이는 시편 1편 6절과 같은 경우이다. “의인의 길은 야웨께서 인정하시나 /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음은 종합적 평행법이다. 이는 첫 구절의 내용은 원인 혹은 전제가 되고 다음 구절체에서는 결과 혹은 완결을 나타내 사상을 확장시키는 경우이다. 이것은 시편 1편 1절부터 하반절까지의 경우이다. “복

있는 자는 /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오직 약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자에 대하여 5가지로 꾸며주고 있는 형태를 종합적 평행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유니온신학교의 브릭스 교수는 여기에서 상징적 평행법, 계단적 평행법, 그리고 시편 6편 8절에서 10절과 같은 것으로 내성적 평행법을 첨가시키기도 했다.

③ 히브리 시의 구성상의 특징은 운이라 할 수 있다. 이 운이란, 시의 율동적 표현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와 산문과의 구별은 율동적 표현인 운에 달려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시의 형태나 표현이 무척 자유롭고 다양해졌으나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형식이 운이었던 것이다. 시편의 운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두운과 각운과 반복운이다. 두운(Alliteration)이라는 것은 시가의 절을 구성하는 각 행의 처음에 자모를 같게 하여 운을 붙이는 것이다. 이것은 시의 각 구절을 같은 말이나 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한국 성경에서는 느낄 수 없으나, 히브리 성경을 직접 읽으면 아주 질서정연한 두운에 관한 규칙을 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편이 아주 유명한 시편 119편이다.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22자를 8절씩 똑같이 시작하여서 만들어진 시편이다.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이라면 1절부터 8절까지는 A로 시작하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또 17절부터 24절까지는 C로 시작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시편 119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각운이다. 이것은 구절의 줄 끝에 다는 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편 45편은 거의 모두가 'Kha'라는 소리로(같은 음으로) 끝나고 있다. 다음은 반복운이다. 이는 같은 단어나 절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편 136편은 총 26절 모두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담겨있는 내용이다.

1절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되어서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이 너무 감사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야 한다.

**2. 두 번째로는 시편에 담긴 은혜로운 말씀들과 시편을 통하여 우리들이 발견하고, 도전해야 할 미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1) 먼저 시편에 담겨 있는 진리와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다.

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을 보겠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별도 달도,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한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②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축복을 받는 길인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사람들은 다 인본주의, 이권을 쫓아간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는 선으로 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야 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응답을 받더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실패자이다. 그렇게 되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바란다.

③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편 11편 5절에 보면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폭력적인 언어, 행동,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

④ 새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14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149편 1절에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 찬양, 시이다.

⑤ 또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이다. 다윗은 작사, 작곡할 뿐만 아니라 악기를 만들도 배웠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제금이란 악기의 일종으로 두 개의 금속판이나 사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손으로 잡고 부딪쳐서 소리를 내는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은 군악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우리교회도 다양한 악기를 통해 찬양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램넌트들이 악기를 배워야 하겠다.

⑥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은 4천 명이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기도 했다. 역대상 23장 5절에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다윗은 정치, 경제, 문화의 주역으로 한 시대의 RUTC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은 다윗의 인생과 RUTC운동을 적용하면서 시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R ; Remnant, 구별된 자, 버려진 모퉁이 돌 같은데 기둥이 된 자들이다. 남은 자이지만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사람이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앞으로 남길 자이다. U ; Unity, 원니스 되어야 한다. T ; Training, 훈련하는 것이다. C ; Center, 훈련하며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1. 제1RUTC운동이다. 다윗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전 달하는 제1RUTC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하겠다. 제1RUTC란, 오직복음과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전도제자들을 모아 훈련시키는 모임과 훈련을 의미한다. 그것이 62가지 복음훈련이다.

2. 제2RUTC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복음을 위하여 신학, 정치, 경제, 문화, 예체능을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건축물들을 전국과 세계 곳곳에 건축해야 하겠다. 램넌트의 딸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준이 세계복음화, 램넌트이면 보인다.

3. 제3RUTC운동이란 다윗과 같은 인물을 모든 현장에 파송시키는 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에 파송시키는 것이다.

4. 제4RUTC운동이다. 이는 다윗왕국시대처럼 강대국과 우상종교와 영적인 문제로 인해 시대를 저주와 재앙과 전쟁으로 몰아가는 흑암의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다. 다 만들어놓고도 파괴되는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다.

5. 제5RUTC운동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또 교회 안에도 복음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 다윗도 이 운동은 실패하였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셋팅하기 위해서 시편과 같은 작품을 남길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적인 RUTC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전해야 할 RUTC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소중한 교단과 협회가 이 사역에 정말로 대표적으로, 모델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